

부다피아 ③

부다피아(Buddhopia)=붓다(Buddha)+이상향(Utopia)

현대불교 부다피아 개설 취지

부다피아가 이일부터 불교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성큼 앞당기게 됐다.

지구촌 불자 모두가 컴퓨터 화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류는 이미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

다. 부다피아는 현대불교전문사가 운영

하는 국내 유

일의 인터넷 불

교전문 정보 서

비스 웹사이트

로 붓다(Buddha)

와 이상향의 세

계(Utopia)의 합성어로 명명된 것이

다. 이는 또 정보화 시대 불교 정보

의 세계화를 통해 불교도 건설을

앞당긴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

다. 국내외 불교 정보의 총망라된

이 컴퓨터 도량은 국내 불교를 체계

적으로 묶어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해의 각국의 불교 소식을 물론

불자들의 정신세계까지를 아우르고

자 일주문을 활짝 열었다. 이로써

'불교정보세계화'로 불국토 건설 1백50개국 5천만 네티즌에 전범

다. 1백 50개국의 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컴퓨터를 통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정보를 나눠 가지며 정보사회를 향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도 이미 50만 명을 넘어섰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학술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해외 각국의 불교 소식은 물론 불자들의 정신세계까지를 아우르고자 일주문을 활짝 열었다. 이로써

한국의 불교계에는 세계 정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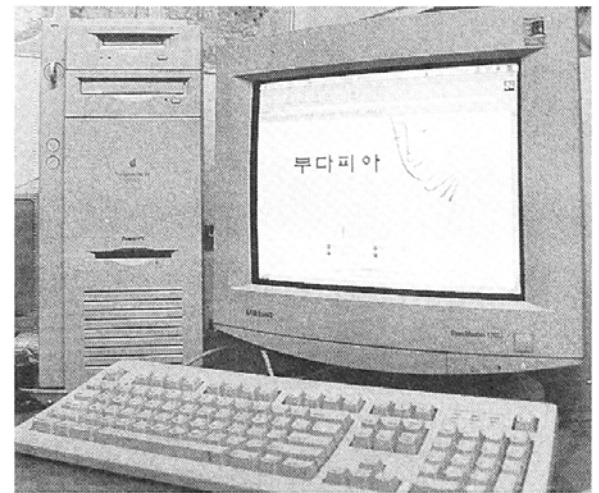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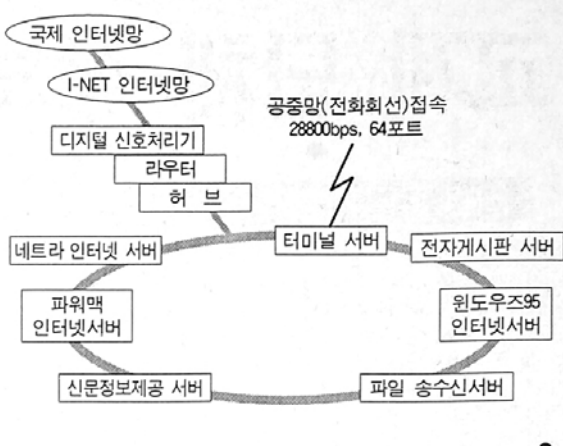
멀티미디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부다피아 정보센터는 네트 인터넷 서버, 9150 파워맥 인터넷 서버, 사실전자계시판 서버, 터미널 서버 등 다수의 정보제공 컴퓨터들이 근거리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서버들은 각 데이터베이스 제공 서비스, 파일 송수신 서비스, 사용자와의 접속서비스를 필요한 작업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터미널 서버가 제공

부다피아 정보센터 기술적 소개

하는 PPP 접속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 전화망을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를 접근하거나 부다피아 사실 전자계시판과 I-NET망을 통해 국제 인터넷망으로 연동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부다피아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파일 송수신(FTP), 원격 접속(Telnet), 전자우편(E-mail), 웹(WWW)서비스 등도 받게 된다.



인터넷 부다피아 초기화면.



본사 전략정보기술팀이 인터넷에 부다피아 웹사이트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한국불교정보의 세계화가 실현되고 있다. 사진은 전략정보기술팀에서 정보서비스 자료를 입력하는 장면.

인터넷상의 부다피아

동화상 구축·초고속 통신망 연계 뉴미디어 시대 '정보 포교사' 역할

인터넷에 있어 부다피아는 국내 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적 의의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불교관련 정보를 세계무대로 내놓는 최초의 종합 웹사이트란 점이다. 즉 한국 불교에 대한 세계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선도함으로써 현대 불교의 새로운 포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또한 부다피아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동화상과 음성서비

스 시스템 개발은 물론 초고속 통신망과의 연계까지 기술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어 국내최대의 불교 정보센터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아울러 부다피아는 국내외 불교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형성 홈페이지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는 각 단체들이 갖추고 있는 정보들을 부다피아를 통해 인터넷에 제공하는 일종의 기획사업이다. 부다피아가 기술제공하여 개설할 교계 각 단체들의 홈페이지는 흩어져 있는 국내 불교정보를 통합화

한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세계 인터넷 마당에도 아직 이러한 종합정보센터 형식의 웹사이트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부다피아의 총괄적 정보제공기능은 인터넷상에서 정보 보유의 다양화를 꾀하는 하나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다피아의 국제적 위상도 미국의 거대 정보검색업체 링크스타의 평가가 대변해 주고 있다. 부다피아는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한국 불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일소시키는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한 세계 인터넷이용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때문에 불교관련 홈페이지들에 잘못된 정보자료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부다피아는 이러한 오류를 검색해 전자우편을 통해 잘못 등재된 내용들을 지적하고 바르게 이해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부다피아는 대표적 인터넷 불교정보 제공업체 넷리, 신부디움, 티벳관련 불교정보 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성 보다 정확한 정보 교류에 기술력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부다피아가 하는 일과 할 일

FTP·전자우편 등 종합서비스 정보 컨소시엄 구성 등 중점 추진

부다피아는 사실 전자계시판(Buddhopia BBS)과 인터넷 정보센터로 구성돼 있다.

사실전자계시판은 전자우편, 게시판, 파일 송수신, 대화실, 동호회 운영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곳을 통해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운용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게 했다. 사실 전자계시판은 천리안이나 하이텔과 같이 국내 전화망 가입자는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 할 수도 있다.

인터넷 정보센터의 주요기능은 인터넷상의 파일 송수신 서비스(FTP), 인터넷 원격지 주컴퓨터 접속서비스(Telnet), 인터넷 전자우편 서비스(E-Mail) 등이다. 이 에 따라 국내외의 인터넷 사용자는

부다피아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다피아는 점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실시와 정보교류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다피아는 본격 서비스 실시와 함께 4가지의 중점 사업을 펼친다. 불교관련 멀티미디어 정보 구축과 제공, 불교 관련 포럼의 활성화, 불교 관련 소프트웨어 공모전, 부다피아 정보 센터 컨소시엄이다. 이들 사업은 불교 정보의 종합화와 이용자들의 참여 폭 확대, 유사 매체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다피아가 명실상부한 불교정보 제공업체로서의 위상을 갖추며 불교정보 교류의 무대를 증폭시켜가기 위한 것이다.

본사 전략정보기술팀 황성록 팀장

부다피아의 개편은 현대불교신문의 창간과 함께 진행해 온 숙원불사였다. 작년 여름 황성록 팀장이 부다피아를 꾸려줄때 이 분야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었다. '진짜 있었어야 할 것이 이제 생겼다'는 기대의 발로였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며 설레임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서비스 시작 직후 미국의 정보검색업체 링크스타로부터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불교 일하는 사람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었다. 지금의 부다피아 개편은 시



"정보 법당 짓는 마음으로 기술개발 전력투구 했어요"

"아직 시작일뿐" ... 사용환경개선 위해 노력

작에 불과하다. 준비중에 빠져 지게 느꼈던 국내 불교계의 정보화 에 대한 인식부족과 체계화된 자료의 부족들은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다. 부다피아는 이런 숙제들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가야 한다. 세계적 조류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로 가는 포교사가 아니라 컴퓨터로 문자를 보내고 화상과 음성으로 보내는 정보통신 사회의 포교사로서 가야 할 길이 바로 부다피아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진정한 부처님의 땅으로서의 부다피아를 만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부다피아 포교법당이 그 일주문을 열어 인터넷 가상공간 제공업체로서의 위상을 갖추며 불교정보 교류의 무대를 증폭시켜가기 위한 것이다.

세계속의 불교로 한치의 모자람이 없으리라 감히 자부한다. 세계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불교 관련 통합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통과 함께 많은 해외의 홈페이지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다. 부다피아의 개편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불자들의 부다피아를 이용한 벽없는 정보교류도 기대한다. 부다피아는 기존의 컴퓨터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계 정보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아직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기에 더 큰 보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으므로 우리 전략정보기술팀은 보다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더 좋은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주요진사업들을 설정해 작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기도 하다.

사랑도, 혁명도, 역사도 다 업(業)이어라

죄없고 밋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안고 산다.



“이 땅의 승려로서 80년 5월의 항쟁은 나의 풀리지 않는 화두였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장. 그 인과에 의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전국 서점가 베스트셀러 예고 해범스님 장편소설



산중 암자로 떠나 버린 스님이 독 던지고 간 소설! 그렇다. 운명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의 삶 불교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리현석(문학평론가)-

해범스님의 소설 업보의 주인공 불내에 찍히고 깃털한 이 땅의 불자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종학(변호사)-

까닭모를 허전함에 가슴시린 날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인데 삶은 왜 자꾸 저열해지고... 세상은 왜 나를 두고 앞으로만 달아나지... 별거슬이로 태어나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형도 굶도 역시도 결국 업으로 받는 과보인 것을 지친 우리의 영혼은 어디쯤 이르러야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소설 업보는 5.18광주항쟁을 배경으로 산내림을 받고 무너가 된 기구한 한 여인과 과거승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도의 길을 걷게 되는 아들의 필박한 인간살이를 통해 푸른 대로 거둔다는 뜻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순가쁘게 넘어가는 책갈피마다에서 묻어 나오는 슬픔과 아픔은 우리의 삶 자체가 고행의 길인 동시에 수행의 길임을 깨닫게 한다.

반야심경의 작가 해범스님이 눈물로 피로 새내려간 살아 있는 혼의 소설 업보 업보는 저금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바로 책을 그리고 있다

사람의 길은 진실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일컫는 강요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내승 뜻, 체면치레 뜻!

사람의 길

이 향봉 스님 장편 구도 소설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열려 있다. 진리 또한 열려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도를 말고, 밋도 말고, 넋도 말고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거다.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한평생 인생, 생명은 오직 하나. 연승으로 소모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려깊은 사람이다.

*인도성자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향봉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회후!

전국 서점 결합 판매중 217,000원 345면 신국문 양장본